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특보 2012.3.31 (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편집인 정성호.구정모

‘투쟁은 방울방울’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한달여를 돌아보며

연합뉴스 노조가 2월13일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시작한 뒤 일인시위, 연가투쟁, 임시총회, 파업찬반 투표, 총파업 돌입 등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중간 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통해 그동안의 노조 활동을 정리했다.

◇ 연합뉴스 노조 투쟁일지

- 2.13 노조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며’ = 연임저지와 공정보도 쟁취 투쟁 선포
- 2.15~2.23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1인시위 = 본사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1인시위와 릴레이 단식
- 2.20 대의원대회 = 박정찬 사장 연임 거부 투쟁 결의, 쟁의조정신청 여부 노조 집행부 위임
- 2.24 노조글 ‘순리를 거스를 순 없다’ = 박정찬 사장 입장 표명 반박
- 2.27~3.4 연가투쟁 및 공휴 · 주말 근무 거부
- 2.29 조합원 비상 총회 = 파업 결의
- 3.7~13 총파업 찬반 투표
- 3.7~ 불공정보도특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발행(6회)
- 3.9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촛불문화제 개최
- 3.13 총파업 가결 = 재적 504명 중 471명 투표, 396명 찬성(투표율 93.45%, 찬성률 84.98%)
- 3.15 총파업 돌입, 파업 출정식
- 3.20~21 주주총회 총력투쟁, 방송3사와 공동집회
- 3.21 연합뉴스 주주총회, 박정찬 사장 연임 결정
- 3.23 박정찬 사장 출근저지 투쟁 돌입

“이때는 미처 몰랐어요. 목도리 풀고 봄옷 꺼내입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줄은...”

2월1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 건물 앞에서 공보위 고형규 간사가 박정찬 사장 연임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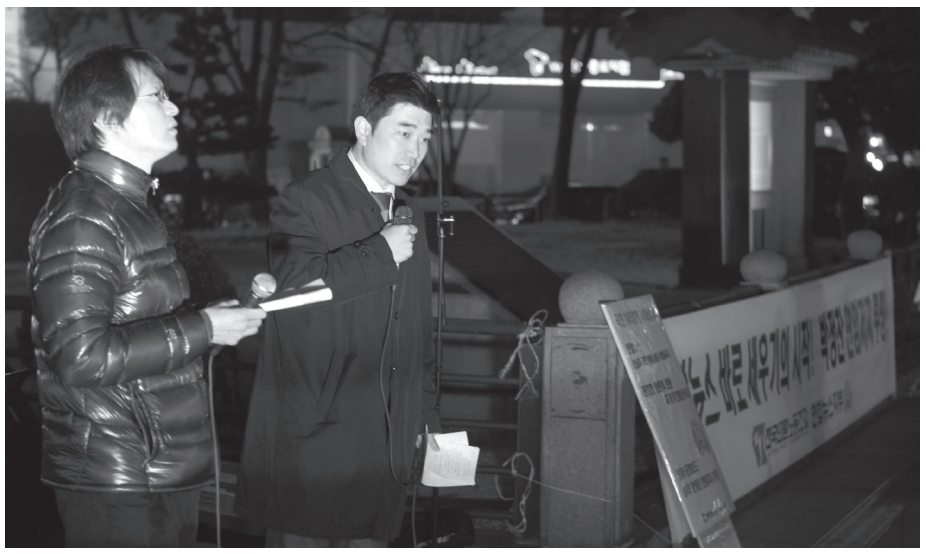
“아니아니 아니!돼요~ 박사장은 아니!돼요~”

꽃샘추위 이겨낸 투쟁 열기

2월27일 뉴스통신진흥회 건물 앞에서 조합원들이 박정찬 사장 연임반대를 위한 첫 연가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가 사죄합니다” 촛불문화제

“연합뉴스에 안희 있다”



3월9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촛불문화제에서 안희 조합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내가 연합뉴스 가수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촛불문화제에서 박지호 조합원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조금 쑥스럽지만…공정보도 쟁취! 투쟁!”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촛불문화제에서 젊은 조합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저는 북한부에서 넘어온 가숩니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촛불문화제에서 장용훈 조합원이 열창하고 있다

23년만의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을 하더라도 배는 집어넣고 허리는 폅시다”

3월2일 사옥에서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공정보도 믿습네까~ ” “믿습네다~ ”

3월 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에서 공병설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

“투쟁은 즐겁게”

3월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3년동안 참아왔다!”

3월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Occupy 연합뉴스”

3월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에서 한 조합원이 영화 ‘브이 포 벤데타’ 가면을 쓴 채 수건 피켓을 펼치고 있다

“햇빛 가리개로는 수건 피켓이 최고”

3월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연합뉴스 파업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수건 피켓을 펼치고 있다.

“베이징에서 날아 왔습네다”

차대운 베이징 특파원이 3월15일 연합뉴스 파업출정식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급거 귀국, 사장 연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가 갑니다!” 입 찢어진 새신랑

3월16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병규 조합원(한가운데)이 사장연임 반대를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투쟁 준비는 착실하게

“우리는 인증샷 잊지 않는 성실한 조합원”

3월 20일 조합원들이 연합뉴스 주주 언론사를 방문해 박정찬 사장 연임저지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파업과 다이어트를 한 큐에”

3월19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3년차 조합원들로 구성된 댄스그룹‘용감한 사원들’이 몸을 던져 파업체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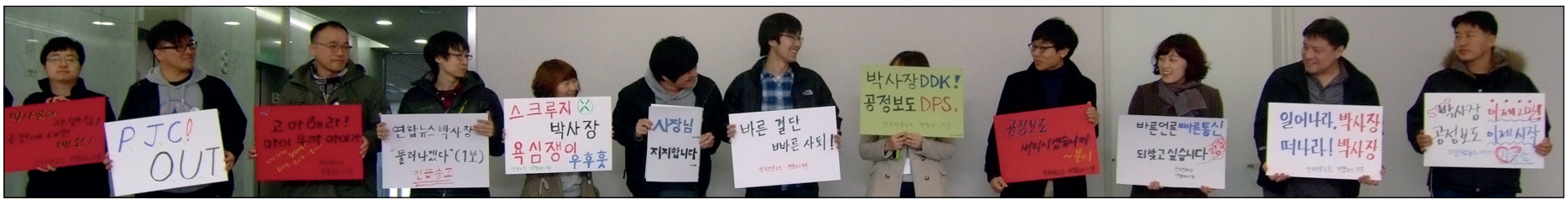
“나도 박 사장 땜에 못살겠다 ㅋㅋㅋ”

3월 19일 사옥 8층에서 류지복 조합원이 만든 피켓을 들여다보며 해맑게 웃는 강영두 조합원.

“국제부가 최고죠?”

3월19일 사옥 8층에서 국제뉴스부 조합원들이 각자가 만든 파업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누가누가 잘 썼나”



3월 19일 사옥 8층에서 사회부 조합원들이 각자 만든 파업 피켓을 들고 나와 자랑하고 있다.

“파업투쟁 준비 끝~”

3월19일 사옥 8층에서 조합원들이 파업투쟁 피켓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에도 우리 투쟁 알린다”

한 조합원이 프랑스어로 직접 쓴 연임저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임 결정…사장실 농성 · 출근저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연임을 비나이다"

3월 21일 박정찬 사장이 연합뉴스 주주총회에 참석해 손을 모으고 있다.

앗!성기준 상무도 알고보니.. "박 사장은 아니 돼요"(?)

3월15일 파업출정식 당일 사장실 앞을 막아선 채 손사래를 치는 성기준 상무.

"나도 같이 구호 외쳐볼까?"

3월16일 사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들 사이로 박노황 전 상무가 머리를 삐죽이 내밀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3월27일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와 맞닥뜨린 박정찬 사장이 조합원들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오늘도 못 들어갑니다!"

3월28일 7층 사장실 앞에서 박정찬 사장이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박 사장, 집에 언제 갈거야?"

3월19일 조합원들이 사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동자 총궐기…“연합뉴스를 지지합니다”

“나는 박 사장이 싫어요!”

3월2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이상현 조합원이 ‘나는 사장님이 싫어요’를 주제로 웅변을 하며 절규하고 있다

물오른 파업체조

3월2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3년차 조합원들로 구성된 댄스그룹‘용감한 사원들’이 파업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장대비도 막지 못한 투쟁 의지

3월 2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순악질 여사 “연합뉴스 노조,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월28일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연합뉴스 노조와의 대화에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투쟁의 새 역사 만들길…”

3월16일 한홍구 교수가 조합원들에게 한국 현대 언론사를 강의하고 있다.

10년차 내외 조합원들의 똘망똘망한 눈망울

3월16일 이웅 · 안희 · 강훈상 · 류지복 조합원이 한홍구 교수의 한국 현대 언론사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